

사람이 많아 끈적끈적한 공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작정 서울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른 봄 새싹을 신고 길을 나섭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봄 기운을 느끼고 싶습니다. 종이 한 묶음과 잉크를 적당히 채운 낡은 만년필을 봇짐에 담았습니다. 잠시 봄을 살다가는 연분홍, 연보라의 고운 꽃들과 함께 길을 재촉해 남으로 남쪽으로 남쪽바다 가까이 내려갑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이 끝나는 곳에 다다를수록 꽃은 많아지고 가랑비까지 봄바람에 뒤섞여 봄내음도 가득합니다. 꽃샘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매화, 왕벚꽃, 복향화는 벌써 꽃잎들을 흘날립니다. 그 광경 보고 있자니 까닭 없이 떠난 사람들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하루는 채송화 가득한 들판을 지나다 나도 모르게 그 꽃밭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문득 나이가 든다는 생각에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멍하니 채송화 속에 고개를 묻은 채 번잡해진 마음을 다스려보려 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살피는 일보다도 몸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지나온 시간에 후회 조금 서운함이 조금 미안함이 조금 부끄러움이 조금 생겨납니다. 이번 여행엔 시계라는 놈을 데려오지 않아 왼쪽 손목을 자주 들춰보며 놈이 있던 자리를 눈으로 만져봅니다. 다시 걸어야합니다. 다시 걷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조용하고 은근한 힘으로 느껴집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먼발치에서 봐두었던 숲에 다다랐을 때 꽃잎이 송어리진 키 큰 목련나무가 바람에 몸 맡겨 일렁입니다. 왜 이제 오냐고 어제가 그날인데 왜 이제 오냐고 그녀도 나도 인사합니다.

공기가 맑아 먼 산이 한층 가까워지고 조금은 서늘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듭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 뒤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입니다. 새벽 봄비에 젖어 오슬오슬 떨어 있던 푸른색 어린 단풍잎들이 작은 바람에 작은 햇살에 젖은 잎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기지개를 펴니다. 숲 안의 나무들을 보며 매해마다 제 모습 잃지 않고 이 땅에서 꽃피고 새순 돋아 제 꼴을 찾아가는 그들을 보며 나도 나답게 매년 살아가는구나 살아가야하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대나무순 자라듯 훌쩍, 오전을 그들과 보내고 나니 벌써 해가 왼쪽 뺨을 따스하게 합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 만난 새로운 친구들 인상을 빼곡히 기록하고 가방을 여는데 호기심 많은 자벌레 한 마리와 딱정벌레 한 마리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녀석들 다칠까 잠시 서서 그 호기심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발길 돌려 어둑해진 숲속을 걸어 나오는데 멀리 저녁 연한 노을색을 보니 여름 생각이 납니다. 아직 봄인데.... 기후가 많이 변한 탓일 겁니다. 뚜렷했던 사계절이 흐릿해진 걸보면 말이죠. 계절에 느끼는 색, 계절에 맛을 수 있는 내음, 계절에 보이는 빛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여정은 산행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아 이른 새벽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어젯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조심조심 짙은 어둠속에서 걷다가 그만 헛디딤 낮은 내리막에서 굴렀습니다. "바보! 덤벙대긴. 조심하지 않고...." 듣는 이 없으니 혼잣말입니다. 별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잦아 금새 옷이 흠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아니 싫습니다. 누운 채 눈을 감습니다. 울고 있었나 봅니다. 산짐승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동이 터 아침입니다. 몸 안엔 이미 흑 냄새와 그 속에 사랑하는 님의 체취 가득합니다. 흠내음속에서 너그러움이 풍겨 나옵니다. 흠은 온갖 더럽고 독한 것들을 깨끗하고 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는 저도 다른 생명들과 함께 이 흠으로 돌아가겠지요. 언젠가는....